

[전체공지]

※ 교황님 기도 지향 (보편 지향: 대양의 보호) 정치인, 과학자, 경제인들이 바다와 대양의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기도합니다.

[잭슨빌]

- 추석을 맞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공동체와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 동남부 성령대회를 여러분들의 협조와 기도로 무사히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성령대회 시디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최영선 마리아 자매님께 주문하시면 무료로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 성령대회를 위해 기도봉헌을 하시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친교실 안내테이블에서 성령대회 책자를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게인즈빌]

- 다음주 미사후 친교실에서 사목회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공동체	주일봉헌금	교 무 금	건축헌금	기타	총 계
게인즈빌	\$94	\$240	-	-	\$334
잭슨빌	\$180	\$120	-	-	\$300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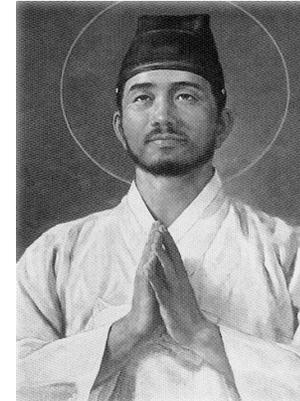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영수 스테파노 (904) 525-4809

성당 (904) 573-1833

잭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換) 프란치스코(1805-1839)

잭슨빌 한인 성당		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	
주일 미사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특전 미사	토요일 오후 7시
평일 미사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첫째 금요일 성체현시 및 미사	평일 미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7시30분 성가대 연습실
성령 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성령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성프란치스코 기도회	매주 (목) 오전 11시	레지오	-
성시간	첫째 주 금요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주일미사후	사목회의	첫째 주 특전 미사 후
사목회장	송재민 하상바로로 (904) 226-7191	사목회장	천창준 레오 (352) 727-0452

www.stfccm.org

<https://www.facebook.com/St.FrancisChoe>

오늘의 묵상

예전에 아들을 너무나 아낀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시집온 며느리가 아들을 빼앗아 간 것 같아서 며느리를 미워하였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아들은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럴 수 있느냐며 자신을 떠난 아들을 원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과 '소유'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위 어머니가 한 것은 '소유'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물건은 소유하는 것이고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소유하려 하니 좋은 결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오히려 보내 주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성전에서 봉헌하셨습니다. 아드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된다고 떼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느님께 봉헌하신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사랑하면 흘러보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하라’는 말은 ‘봉헌하라’는 뜻입니다. 봉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을 잃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투자의 귀재가 자신에게 적은 돈을 맡기면 크게 불러 주겠다고 말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은 돈을 아끼지 않고 과감히 그에게 내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더 큰 돈을 위해서 적은 돈이라도 내어놓아야 하듯이, 더 큰 사랑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다른 모든 것을 내어놓고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아드님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전삼용 요셉 신부)

< 8. 찬미하여라 >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 - ly name.
찬 미 하 여 라 오 나 의 영 혼 아 -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 - to life.
찬 미 하 여 라 거 룩 한 주 이 름

연중 제 23 주일

[제 1 독서] 지혜서 9,13-18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화답송] 시편 90(87),3-4.5-6.12-13.14 와 17 (©1)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제 2 독서] 필레몬서 9 L-10.12-17

<이제 그를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으십시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알렐루야.

[복음] 루카 14,25-33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전례 봉사자>

공동체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이 번 주	게인즈빌 (9/7)	이호석 레오폴드	이명순 로사	이영순 프란체스카	-
	잭슨빌 (9/8)	이교순 카타리나	최명희 크리스티나	이재민 토마스	이상미 미리암 서정원 헬레나
다 음 주	게인즈빌 (9/14)	고승희 엘리사벳	천희제 레아	천송희 스텔라	-
	잭슨빌 (9/15)	윤미임 데레사	손활란 안나	최차숙 마리아	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

<미사 성가>

공동체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건
게인즈빌	425	213	506	393
잭슨빌	437	221	175	48